

“멜로 못할 게 뭐 있나 고민의 여지 없었다”



영화 '빛나는 순간'에서 사랑에 빠진 70대 해녀 진옥을 연기한 배우 고두심.

배우 경력 50년. 방송 3사의 연기 대상을 모두 받은 유일한 배우에게도 풀지 못한 한이 있었다. 영화 '빛나는 순간'에서 사랑에 빠진 70대 해녀 진옥을 연기한 배우 고두심(70)은 드디어 한을 풀었다는 듯 영화 속 진옥처럼 웃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21일 평창동 자택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난 고두심은 “(멜로 주인공은) 젊을 때도 안 시켜줬는데 이 나이에 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아기 엄마로 시작해서 '전원일기' 큰 며느리로 20년을 살았으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이라면 한이었죠. 멜로 못 할 게 뭐 있나, 고민의 여지가 없었죠.”
곳자왈 숲, 찬란하게 빛나는 햇살 아래서 진옥의 무릎을 베고 누운 경훈과의 애뜻한 시간은 아름답게 담겼지만, 동백층에 물리는 바람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 2주나 고생하기도 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고향 바다에 해녀 삼촌들이 다 제주 사람들 아니 안도감이 커서 그랬는지 시키는 것 다 하고, 내가 성에 안 차면 한 번 더하겠다고 하면서 했다”며 “다른 바다에 가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고향 제주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은 연기를 하는 자신뿐 아니라 촬영을 지켜보던 모든 스태프를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다.

경훈의 카메라 앞에서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며 꺼낸 진옥의 깊은 상처는 4·3 사건이었다.

1948년 벌어진 끔찍한 일을 1951년생인 그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기억도 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들어 온 이야기는 “뼈와 살에 새겨진 것 같았다”고 했다.

시나리오에 있던 짧은 대사는 그의 입을 통해 눈앞에서 충격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끌려 나가는 장면이 실타래가 풀리듯 절절하게 흘러나왔다.

“너무 먹먹했고, 지금도 어떻게 했지 싶은데 만족보다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요. 내가 그런다고 억울하게 가진 분들의 한이 풀릴 일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 있던 스태프들과 그 감정을 나누는 거지. 더 하라던 더 할 수도 있었지만 감독이 그만하라고 하더라고.”

차기작은 다시 한번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또 다른 영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지연되는 중이다.

그는 “어떤 역할이든 못할 게 없다”며 “나이 든 배우에게서 깎여낼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작가가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영화 '빛나는 순간'서 70대 해녀역 연기 고두심 제주 취재 온 30대 PD역 지현우와 로맨스 촬영중 동백층에 물려 두드러기 2주 고생도

영화는 제주 해녀 진옥이 자신을 취재하러 서울에서 온 다큐멘터리 PD 경훈(지현우)을 만나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으며 온기를 나누는 특별한 로맨스를 담았다.

제주도 출신인 그는 '고두심하면 제주도고, 고두심의 얼굴이 제주의 풍광'이라는 소준문 감독의 말을 전하며 “그 말을 듣고도 못 하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막내아들백인 30대 배우와의 애정신에는 조금 망설이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고두심은 호쾌하게 웃으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여배우로 50년을 살았지만 멜로를 못 해봐서 멜로물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어요. 갓난쟁이

2004년 영화 '인어 공주'에서도 제주 해녀 역을 맡긴 했지만, 상황과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중학교 때 바다에 빠져 물을 많이 먹은 뒤 물을 무서워하고 싫어했는데 그때까지도 극복을 못 했을 때였어요. 시나리오를 받아 보니 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없어서 하기로 한 건데 나중에 물에 들어가는 막한 장면만 해줄 수 없냐고 해서 시간을 쪼개가며 어렵게 연습을 했죠. 촬영 때 제주도에 태풍이 와 그 한 장면 찍으러 동남아까지 갔지만 공포에 하얏게 질려서 결국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대역 써서 될 일이 아니니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했지. 내가 나이가 몇이든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뒷걸음질 치면 눈 감을 때까지 못 하겠구나 싶었으니까.”

한예슬 “허위사실 끝까지 대응...유튜버·김용호 고소”

배우 한예슬(사진)이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제기된 각종 사생활 논란을 일축하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소하기로 했다.

한예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1일 “의뢰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은 물론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예슬도 이날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를 알려드릴수록 입에 담지도 못 할 말들이 매일 영상으로 전파되고, 또 자극적인 문구들로 기사화돼 지극히 사생활이고 심지어 허위사실인 내용이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끝까지 대응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롭살롱, 마약 (투약 논란), 탈세까지...



다. 그러면서 유튜버들을 겨냥, “앞에 나서지 않는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내 이름 뒤에 평생 따라붙게 되고 죄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내 미래에 대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안전한 침묵보다는 침묵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한예슬은 최근 공개한 남자친구를 자신의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내 사업체의 직원이 맞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에 도움받고 싶어 직원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산 것과 관련해서는 “탈세라고 볼 수 있는 비용 처리를 진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유튜버 김용호 등은 한예슬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했으며, 그의 남자친구도 화류계 출신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한예슬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박민영·송강, JTBC '기상청 사람들' 주연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

JTBC는 내년 상반기 방송할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사내연애 잔혹사 편'에 배우 박민영, 송강, 윤박, 유라가 출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기상청 사람들의 일과 사랑을 그리는 드라마다.

박민영은 기상청 총괄2과 총괄예보관 진하경 역을 맡는다. 일이면 일, 자기관리면 자기관리, 매사에 푹 빠지는 인물로 공과 사가 확실하고, 대인관계마저도 맏고 끊음이 분명한 인물이다.

같은 과 과보 담당 이시우 역은 송강이 연기한다.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

윤박은 기상청 대변인실 통보관 한기준으로, 유라는 일간지 기상전문 기자 채유진으로 분한다. /연합뉴스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에 출연하는 배우 박민영(왼쪽)과 송강.

“부부의 세계”를 비롯해 ‘미스터’, ‘육체 남정기’ 등을 쓴 강은경 크리에이터와 글Line(글라인) 소속 선영 작가가 대본을 쓰며 ‘동백꽃 필 무렵’의 차영훈 PD가 연출을 맡는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